

17년 추석 장관님 산재환자 위문 말씀 참고자료

-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9. 26.(화) 15:00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을 방문
 -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환자를 위문·격려하는 한편, 재활전문센터를 시찰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 ◇ 이어 16:00 첨단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하는 재활공학연구소를 방문
 - 산재장해인의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활기기를 개발하는 현장을 시찰

인천병원 산재환자 격려 및 재활의욕 고취(병동 방문 위문품 전달)

- ☐ 산재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픔

산재노동자가 매년 9만명에 이르며,

특히 영세하고 열악한 현장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함

- ☐ 새 정부에서는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하겠음

원청에 대한 안전의무 강화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치료비 걱정이 없도록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없애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치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음

- ☐ 모쪼록 재활 치료에 힘써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길 당부드립니다.

※ 산재환자 요구사항 관련

- ☐ 간병료 인상 요구

- 현행 간병료 고시는 임금통계(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등을

고려하여 '14년도에 조정하였으며, 최근('17.7월)에 고시한 간병료 지급기준은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고시한 바 있음

- 향후, 인상요인 등 고려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검토하겠지만, 최근 의료정책이 현물급여(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의 방향으로 정해져서 시행되고 있고 산재보험도 의료정책을 따라야 함

=====

<간병료 개요>

- ☐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제공
 - 간병이 필요한 정도란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등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에 명시
- ☐ 간병료 고시 내용

구 분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
간 병 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4등급이상인 의료기관	82,190원	71,000원	59,810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4등급미만인 의료기관	80,670원	69,480원	58,290원
	근로자가 지정한 가족기타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근로자가 지정한 전문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병상수: 간병인 1:1이하	1인당 간병료의 100분의 100		
	1:1초과 1.5:1미만	1인당 간병료의 100분의 85		
	1.5:1이상 2:1미만	1인당 간병료의 100분의 65		
	2:1이상	1인당 간병료의 100분의 50		

인천병원 직원 격려(업무보고)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힘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직원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병원 개원 이후 인천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이자 산재노동자를 위한 전문 치료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에 동참해 준 모두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의료현장에서 산재노동자를 직접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마음이 산재노동자에게는 큰 위안과 격려가 됨

앞으로도 산재노동자의 곁에 우리가 있다는 자세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재활공학연구소 방문 직원 격려

- ☐ 산재노동자의 장해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소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국내에서 알아주는 재활관련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양질의 첨단재활기기들을 산재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음.

- ☐ 모두 아시다시피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재활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산재노동자는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음.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산업현장에서 다치신 노동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치료단계부터 필요한 재활보조기기와 그에 적합한 재활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산재노동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신속하고 정밀한 최신의 치료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다양한 첨단 재활보조기기가 개발되어 원활히 지급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음.

- ☐ 저는 오늘 연구소를 방문하여 희망을 봤음

산재노동자분들의 장애로 인한 절망이 연구소에서 개발된 첨단 재활보조기구를 통해 반드시 재활에 성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희망을 주고 있음

- ☐ 항상 산재노동자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재활공학연구소 직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노동자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음

앞으로도 산재노동자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재활공학연구소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1>

- 재활공학연구소는 그동안 많은 실적과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연구직이라는 특성으로 기간제법에 예외를 받아 비정규직이 41%나 되었으며, 재활공학연구소 책임급 초임 연봉이 타부처 정부출연연구소 대비 60%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임.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타부처 정부출연연구소 정도의 연구원 처우개선이 필요함.

⇒ (답변) 그동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수립된 현재 정부는 노동자분들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으며, 다행히 재활공학연구소 계약직 연구원 16분이 모두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함

고용노동부 산하 연구소로서 산재노동자의 복지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2>

- 재활공학연구소는 산재보험시설로서 산재노동자의 편익향상을 위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활보조기구 판매를 통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수지차 운영기관임. 16년 국회예산정책처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속적인 자체 수입 관리를 지적받았으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산재노동자에게 부담을 주어야하는 구조임.

⇒ (답변) 재활공학연구소의 재활보조기구 연구 및 서비스는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직무복귀라는 관점에서 공익성이 강하므로 보임.

국회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재활공학연구소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 체계를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